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유양경*·고성희**·김귀분***·정승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년기(old age)는 연대기적, 기능적 그리고 사회적 용어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McKenna, 1989). 특히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노인은 '중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0). 이렇듯 노인은 사회적 역할의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여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자존감이 감소될 수 있다(Park, 1994). 그런데 이러한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며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되고(Lee, 1988), 성공적인 노화와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생애를 마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Song & Park, 1992). 또한 긍정적인 자존감은 인간의 행복과 효과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므로(Lee & Han, 1996), 노인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것이야말로 노인을 만족스럽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노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필수적인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

지는 약한 노인의 삶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Phillips, 1991). 더욱이 강한 사회적 지지망은 사람들이 안전감과 가치감을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에서 가치가 있으며,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은퇴와 과부생활 등의 사회적·정신적 상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Preston & Grimes, 1987). 또한 노인들의 은퇴 이후의 생활세계는 사회 중심에서부터 가정이나 이웃, 사회클럽, 종교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므로 중요한 타자도 직장동료로부터 배우자, 자녀, 친척 혹은 친구로 바뀌게 된다(Larson, 1978). 따라서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므로써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Chae & Oh, 1992). 결국 사회적 지지에 있어 지지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의 양뿐만 아니라 지지의 형태와 지지의 근원도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겠다(Thoits, 1982).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는 위기상황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주어진다면 노년기의 체반 상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줄여주어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물론 노인들을 만족스럽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인의 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3년 10월 16일 심사의뢰일 2003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2004년 1월 12일

회적 지지원과 지지형태에 따른 자존감 정도는 어떠한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노인의 자존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노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에 따라 노인의 자존감 정도는 어떠한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노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노인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 1) 노인이 지각하는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규명한다.
- 2)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노인이 지각하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은 중소도시의 재가노인을 표적모집단으로 하여 아래 기준에 적합한 203명을 임의표출하였다. 대상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면접에 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65세 이상인 자이다.

2. 연구도구

1)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지지 등의 4개 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문헌에서 사회적 지지의 형태 뿐만 아니라 지지의 근원도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와 이웃, 및 친지 등의 지지유형별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각 문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지지유형별로

보면 가족, 친구와 이웃 및 친지의 지지는 각각 Cronbach's $\alpha = .92, .93$ 및 $.96$ 이었고 지지유형별로는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지지가 각각 Cronbach's $\alpha = .90, .85, .82$ 및 $.86$ 이었다.

2) 자존감 측정도구

Rosenberg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를 Jon(1974)이 국문으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총 10개 문항이었으나 문항분석 결과 내적일관성이 낮은 3개 문항을 제외한 총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당시에 4점척도인 것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9$ 이었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본 연구자 및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5명의 간호대학생들이 먼저 전화를 통해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회관 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 직접 방문하여 연구관련 제반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참여를 수락한 대상에게 질문지를 읽어주거나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40분 ~ 1시간이었고, 총 203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로 분석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비율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변수에 대해서는 Scheffe 검정법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조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3개의 수준인 결혼상태(married, widowed, etc.)에서 빈도가 1명으로 나타난 수준이 있어 이를 missing 처리한 후 t-test로 검정하였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할 독립변수들 중 명목변수들은 가변수로 처리한 다음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성별은 여자(57.1%)가 많았고, 평균연령은 73.8세로 65~69세 32.5%, 70~74세 25.1% 순이었다. 초등졸 이하가 전체의 %를 차지하였고 82.8%의 노인이 종교가 있었으며 사별한 노인은 50.7%,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는 48.8%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에서는 39.9%가 결혼한 아들과 살고 있었고 그 다음이 노부부만 사는 경우로 30.0%를 차지하였으며 생활형편에서는 80.3%가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대부분(80.3%)이 직업이 없었다. 한달용돈은 평균 27.3만원으로 10만원이하 34.5%, 31만원이상 2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용돈수준에서는 43.8%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68.0%의 노인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39.4%가 나쁘다, 36.0%가 건강하다고 인지하였으며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 59.1%, 배우자 39.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수는 5명으로 6명이상 38.9%, 4명이하 33.5% 순이었고

자녀와의 친밀도는 대부분(88.2%)이 가깝다고 지각하였으며 노인의 64.5%가 친목회나 노인회 등에 가입되어 있었다<Table 1>.

2.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를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노인의 전체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50점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보통수준의 사회

<Table 2> The degree of the perceived social support in subjects (N=203)

Items	Mean±SD (min ~ max)
Sources of Social Support	
family	4.14±0.56 (2.40 ~ 4.96)
friends and neighbors	3.36±0.63 (1.36 ~ 4.96)
relatives	3.00±0.85 (1.20 ~ 4.96)
Types of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3.58±0.53 (1.90 ~ 4.93)
informational support	3.45±0.58 (1.87 ~ 5.00)
material support	3.24±0.60 (1.33 ~ 5.00)
appraisal support	3.63±0.61 (2.13 ~ 5.00)
Social Support (Total)	3.50±0.50 (1.92 ~ 4.96)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203)

characteristics	category	n	%	characteristics	category	n	%
Age	65-69	66	32.5	Monthly pocket money (thousand won)	100 and below	70	34.5
	70-74	51	25.1		200 and below	43	21.2
	75-79	41	20.2		300 and below	38	18.7
	> 80	45	22.2		310 and over	52	25.6
Gender	male	87	42.9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enough	43	21.2
	female	116	57.1		usual	71	35.0
Educational level	none	54	26.6	not enough	89	43.8	
	elementary school	82	40.4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family	yes	65	32.0
	above middle school	67	33.0		none	138	68.0
Religion	none	35	17.2	Joining an organization	no	72	32.9
	Protestant	84	41.4		yes	131	67.1
	Catholic	29	14.3	Perceived health status	bad	80	39.4
	Buddhism	46	22.7		average	50	24.6
Marital status	etc.	9	4.4	good	73	36.0	
	married	99	48.8	Subject to depend upon	spouse	80	39.4
	widowed	103	50.7		children	120	59.1
Perceived economic status	etc.	1	0.5	friend	3	1.5	
	make a good living	15	7.4	Degree of close relationship with own children	not close	24	11.8
	average	163	80.3		close	114	56.2
Occupation	make a poor living	25	12.3	Number of children	very close	65	32.0
	yes	40	19.7		under 4	68	33.5
	none	163	80.3		5	56	27.5
				above 6	79	38.9	

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지원별로 보면 가족 지지가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유형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는 3.24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정도는 평균 3.43(±0.76)점으로, 중간 정도의 자존감을 지각하고 있었다.

3.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r = .477, p = .000$)를 나타내어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3가지 지지원이 모두 자존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the major variables (N=203)

		Self Esteem r(p value)
sources of support	support by family	0.442(.000)
	support by friends and neighbors	0.246(.000)
	support by relatives	0.373(.000)
types of support	emotional support	0.453(.000)
	informational support	0.385(.000)
	material support	0.417(.000)
	appraisal support	0.404(.000)
Social Support (Total)		0.477(.000)

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자존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4가지 지지유형도 모두 자존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정서적 지지가 자존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4.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정도

생활형편($F=18.29, p=.000$), 한달용돈($F=4.27, p=.006$), 용돈수준($F=10.10, p=.000$), 건강인지도($F=8.37, p=.000$), 단체가입($t=-1.99, p=.048$) 및 자녀와의 친밀도($F=15.70, p=.000$)에 따라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Scheffe 검정 결과를 보면 생활형편에서는 못산다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잘산다, 보통이다)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생활형편이 좋을수록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다. 한달용돈은 31만원이상인 노인들이 10만원이하인 노인들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그룹이 다른 두 그룹(충분하다, 보통이다)보다 자존감이 낮았으며, 스스로가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건강하다고 답한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존감이 더욱 높았다. 가입한 단체가 있는 그룹에서 자존감이 더욱 높았으며, 자녀와 가깝지 않은 편이라고 답한 그룹과 다른 두 그룹(가까운 편이다, 매우 가깝다)간에 그리고 가까

<Table 4> The differences between self esteem and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subjects

							(N=203)
Characteristics	category	n	Mean±SD	t or F	p	Scheffe test	
perceived economic status	make a good living ¹⁾	15	3.6857±0.6325	18.29	.000	1), 2) > 3)	
	average ²⁾	163	3.5241±0.7367				
	make a poor living ³⁾	25	2.6343±0.5119				
monthly pocket money (thousand won)	100 and below ¹⁾	70	3.1776±0.7463	4.27	.006	4) > 1)	
	200 and below ²⁾	43	3.5150±0.8840				
	300 and below ³⁾	38	3.5000±0.6565				
	310 and over ⁴⁾	52	3.6346±0.6821				
level of satisfaction with pocket money	enough ¹⁾	43	3.7309±0.6724	10.10	.000	1), 2) > 3)	
	usual ²⁾	71	3.5573±0.6983				
	not enough ³⁾	89	3.1750±0.7842				
perceived health status	bad ¹⁾	80	3.1750±0.7610	8.37	.000	1) < 3)	
	average ²⁾	50	3.4943±0.6564				
	good ³⁾	73	3.6556±0.7644				
joining an organization	no	72	3.2837±0.7644	-1.99	.048		
	yes	131	3.5049±0.7560				
degree of close relationship with own children	not close ¹⁾	24	2.7440±0.6061	15.70	.000	1) < 2), 3) 2) < 3)	
	close ²⁾	114	3.4148±0.7321				
	very close ³⁾	65	3.6989±0.7183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on Self Esteem

(N=203)

Independent Variables	Beta	R ²	F	P
Intercept	1.076			
material support by family	.370	.191	25.933	.000
informational support by relatives	.311	.298		
perceived economic status	-.182	.339		
perceived health status	.219	.369		
subject to depend upon	.183	.398		

은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과 매우 가깝다고 답한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자녀와의 친밀도가 클수록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노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원 및 지지유형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자존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로써 19.1%의 설명력을 보였고,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보적 지지, 생활형편, 건강인지도 및 의지대상(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식이라고 응답한 그룹만 해당됨)이 포함되어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총 39.8%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본 연구자는 재가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 가운데 사회적 지지를 노인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친구나 이웃 및 친지 등의 사회적 지지원과 정서, 정보, 물질 및 평가적 지지 등의 지지유형으로 나누어 이들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의 정도 및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재가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존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상관성도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r=.58, p<.001$)를 보였던 Kim(1993)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과는 다르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Robinson(1990), Lee와 Han(1996)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의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3가지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는 가족의 지지가 자존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4가지 지지유형에서는 특히 정서적 지지가 자존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지지를 필요로 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친구와 이웃, 마지막으로 공적지지체계에 의존하게 된다고 한 Cantor와 Little(1985)의 ‘위계적 보상이론’이나 사회적 원조 중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은 노인의 정신신체적 복지 모두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Suh(1989)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House(Song & Park, 1992에 인용됨)는 사회적 지지 가운데서도 정서적 지지가 자존심(self-esteem)과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노인의 자존감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신뢰, 사랑, 돌봄, 가치감을 보장받을 때 강화된다고 하였으므로(Krause, 1987) 4가지 사회적 지지유형 중에서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를 포함하는 정서적지지가 자존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계획할 때 사회적 지지원 중에서 가족을 비중있게 고려할 것과 지지유형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존감 정도를 보면 생활형편, 한달용돈, 용돈수준, 건강인지도, 단체가입 및 자녀와의 친밀도에 따라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의 생활형편이 좋을수록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던 Song과 Park(1992)의 연구나, 경제상태

가 높은 노인이 낮은 노인에 비해 자존감이 높다고 한 Kim의 연구(Chon, 1988에 인용됨)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제상태가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실제 경제상태보다는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보고(Medley, 1977)를 고려하여, 한달용돈이란 변수와 함께 용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변수를 함께 살펴본 결과, 용돈액수 뿐 아니라 용돈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변수 모두에서 자존감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용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노인군이 정서, 정신건강 점수가 가장 높고, 용돈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노인군의 정서, 정신건강 점수가 가장 낮았음을 보고한 Choi, Kim, Byon과 Won(1990)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게 되어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는 Klemmack의 관점을 고려해볼 때(Youn & Lee, 1997), 노인들에게 있어 경제적인 요인은 이들의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재가노인이 건강에 대한 인식정도가 좋을수록 자존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Yoo(1999)와 Sung(1997)의 연구결과나, 주관적 건강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Song과 Park(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또한 이는 재가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타인과 비교해보았을 때 '더 좋다'라고 대답한 노인이 '비슷하다', '더 나쁘다'라고 답한 노인에 비하여 자존감 점수가 높게 나타난 Cho, Lee와 Kim(1999)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이는 즉 자신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가 노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입한 단체가 있는 노인이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변수와 자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드물어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들이 정년퇴직의 역할상실로 인해 부정적 자아감을 갖게 되는데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증가시킴으로써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하게 되고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Kim(1987)의 견해나, 노인의 활동은 개인적 활동보다는 집단적 활동을 통해서 고독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활동은 자아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Park(Kim, 1987에 인용됨)의 견해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년기 남성은 은퇴초기에 가족 속으로 깊이 몰두하는 시기가 있다가 그 후로 점차 가족 밖 친구 또는 지역사회 쪽으로 상호작용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의 시기를 가지는데, 특히 한국의 남성 노인들에게 이러한 가족밖의 사회참여는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혀주고 아울러 생활만족도를 만족시켜주고 있다고 한 Han(1986)의 견해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노인이 자녀와의 친밀도가 클수록 자존감을 더욱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는 노년기가 되면 성인자녀가 중요한 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성인자녀는 노부모의 자존감 유지에 중요한 원천이 됨은 물론 자녀와 애정과 친밀감 및 가치의 일치를 느낄 때 자존감이 유지되며 심리적인 손상이 감소된다고 한 Shin과 Seo(1994)의 연구와 노인이 다른 어느 집단으로부터의 만족감보다도 그의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그들의 성공적인 노후나 생활만족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 Liang(1984)의 연구, 그리고 자녀유대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령기에 접어든 노인들에 있어서 자녀유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 Kim(1987)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물러나면서 일반 교제범위가 좁혀진 노인들에게 가족 특히 자녀와의 친밀도는 이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노인의 자존감을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탐색해본 결과, 노인이 지각한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가 자존감을 19.1% 설명해주었고,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보적 지지, 생활형편, 건강인지도 및 의지대상(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식이라고 응답한 그룹만 해당됨)을 추가하면 자아존중감을 39.8% 정도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는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자존감을 13.3% 설명한 것으로 나타난 Yoo(1999)의 연구, 노인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1993)의 연구, 및 노인의 자존감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고 한 Krause(1987)의 견해와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지지원과 지지유형별로 세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결과는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물질적 지지가 노인의 자존

감을 설명하는 변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음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노인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를 강화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여 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원과 지지유형에 따른 자존감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질적인 삶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중소도시의 재가노인 203명을 대상으로 Park(1985)의 사회적지지 도구와 Jon(1974)이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를 국역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 Pearson 상관계수, t-test와 ANOVA, Scheffe 검정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 지각한 전체 사회적 지지는 평균 3.50점으로 나타났고, 지지원별로는 가족 지지가 4.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지유형에서는 평가적 지지가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질적 지지는 3.24점으로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노인이 지각한 자존감은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2.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 정도는 다소 높은 순상관관계($r=.477, p=.000$)를 나타내어 노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지각한 자존감에 대하여 3가지 지지원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자존감과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4가지 지지유형도 모두 자존감과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정서적 지지가 자존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생활형편, 한달용돈, 용돈수준, 건강인지도, 단체가입 및 자녀와의 친밀도에 따라 자존감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4. 노인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19.1%)였으며, 여기에 친지로부터의 정보적 지지, 생활형편, 건강인지도 및 의지대상(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

식이라고 응답한 그룹만 해당됨)이 포함되어 자존감에 대한 설명력은 총 39.8%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그들의 자존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물질적 지지가 이들의 자존감을 설명하는 변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므로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의 물질적 지지를 강화시켜야 함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1. 노인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간호를 계획할 때에는, 사회적 지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지지원 중에서 가족의 지지를 그리고 지지유형 중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된 친지로부터의 정보적 지지와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주위 친지들을 사회적 지지원 가운데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노인의 지지체계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물론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시 임의표출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References

- Cantor, M., & Little, V. (1985). Aging and social care. In Robert H. Binstock & Ethel Shanas(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pp. 741-781). New York : Von Nostrand Reinhold Company.
- Chae, S. W., & Oh, K. O. (1992).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home residents and institution residents). *J Korean Acad Nurs*, 22(4), 552-568.
- Cho, K. S., Lee, K. Y., & Kim, S. Y. (1999). A study on th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f elderly home resi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11(3), 436-448.
- Choi, Y. H., Kim, M. S., Byon, Y. S., & Won,

- J. S. (1990). Health status of elderly persons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3), 307-323.
- Chon, S. J. (1988). A study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elderly persons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and nursing home residents -. *J Red Cross Nurs*, 10, 125-144.
- Han, S. H. (1986). *Social inter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 Louis University.
- Jon, B. J. (1974). Self-esteem :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 107-130.
- Kim, J. S. (198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K. B. (1993). Correlation study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health practice for the elderly. *J of Nurs Res of KyungHee Univ*, 16, 213-243.
- Krause, N. (1987).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2(4), 349-356.
- Larson, R. (1978).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 Gerontol*, 33(1), 109-125.
- Lee, J. K., & Han, A. K. (1996).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 esteem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8(1), 55-68.
- Lee, K. M. (1988). A study on the self-esteem and health status of people : home resident and institution resident.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iang, J. (1984). Dimensions of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 A structural formulation. *J Gerontol*, 39(5), 613-622.
- McKenna, M. A. (1989). Transcultural perspectives in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In M. M. Andrews & J. S. Boyle(ed.), *Transcultural concept in nursing care*(pp. 189-220).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ublishers.
- Medley, M. L. (1977). Marital adjustment in the post-retirement years. *The Family Coordinator*, Jan, 5-10.
- Park, H. S. (1994). *The effect of group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gu.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Phillips, L. R. (1991). Social support of the older client. In W. C. Chenitz, J. T. Stone, & S. A. Salisbury, *Clinical gerontological nursing : A guide to advanced practice*(pp. 535-545).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mpany.
- Preston, D., & Grimes, J. (1987). A study of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J Gerontol Nurs*, 13(2), 36-40.
- Robinson, K.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urden in adult caregiver. *J Advanced Nurs*, 15, 788-795.
- Shin, H. S., & Seo, B. S. (1994). Study on casual relationships amo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aged fathers.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4(2), 121-132.
- Song, D. H., & Park, H. G. (1992). A study on the self-esteem for the Korean aged.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2(1), 79-96.
- Song, M. S. (1991). *Construction of a functional status prediction model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Suh, M. K. (1989). *Social support and the elderly's mental well-being in modernizing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Sung, K. W. (1997). Degree of cognitive fun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by aging. *J Korean Acad Nurs*, 27(1), 36-48.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0). *Understanding on the gerontology*. Seoul : Daeyoungmoonhwasa.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 Health Soc Behav*, 23(2), 145-159.

Yoo, Y. G. (1999). A study on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the self-esteem of the aged. *J Korean Acad Adult Nurs*, 11(3), 367-377.

Youn, J. H., & Lee, H. K. (1997). The effects of self-esteem, health status, family relatio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on the life satisfaction of aged widows. *J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17(1), 289-304.

- Abstract -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on Self Esteem in Elderly

Yoo, Yang-Gyeong**Ko, Sung-Hee**
Kim, Kwuy-Bun***Chung, Seung-He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degree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s the self esteem of the elderly. **Metho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03 elderly subjects from April 2003 to June 2003.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n SPSS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moderate; family support received the highest score among sources of support. In types of support, appraisal support was the highest score and material was the lowest. The level of self esteem was also moderate. The score of social support showed a slightly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 esteem. In general characteristics, severa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 esteem.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self esteem was material support by family and the variance explained was 19.6%. A combination of material support by family, informational support by relatives, perceived economic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aving a subject to depend on accounted for 39.8% of the variance in self esteem of the elderly. **Conclusion:** To increase the self esteem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material support by family.

Key words : Social Support, Self Esteem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